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캐나다 -

◇ 기 간 : '18. 8. 23.(목) ~ 9. 2(일)

◇ 지 역 : 캐나다 캘거리, 밴프, 제스퍼 등

- ◆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도시, 문화 및 생태 공간 선진 사례 조사
- ◆ ‘충남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정성 향상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북미지역의 로드킬 현황과 운전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로드킬 저감시설 답사

1 공무국외 개요

- 기간 : 2018. 8. 23(목) ~ 9. 2(일) / 9박 11일
- 지역 : 캐나다 5개 지역(캘거리, 밴프, 재스퍼, 애드먼튼, 밴쿠버)
- 진행흐름

8.23(목)	8.24(금) ~ 8.28(화)	8.29(수) ~ 8.31(금)	9.1(토) ~ 9.2(일)
출 국	캘거리, 밴프, 재스퍼	애드먼튼, 캘거리, 밴쿠버	귀 국
·인천공항	·기관 방문 및 현장견학 (미스타키스 연구소, 밴프 국립공원 등)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헤리티지 파크, 그랜빌 아일랜드 등)	·밴쿠버 출발(9.1) ·인천공항 도착(9.2)

- 인원 : 3명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정옥식 연구위원, 정지은 책임연구위원)
- 주요활동 : 주요 기관 방문, 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조사

2 공무국외 목적 및 방문기관

가. 공무국외 목적

연구과제	방 문 목 적	비고
① 내포신도시 환 황해권 중심도 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도시, 생물다양성도시 사례 조사, 문화 및 생태 공간 선진사례 답사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 육성전략 수립 시 시사점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목적 	
② 충남 로드킬 현 황조사 및 도로 안정성 향상방 안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드킬 현황과 운전자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로드킬 저감시설 답사 및 기관 방문 로드킬의 인식 확대와 저감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실제 사고 수집 및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운영 사례 조사 	

나. 방문기관

- (로드킬 DB 관리기관 및 저감시설의 공식방문 및 사례조사) 미스타 키스 연구소(Miistakis Institute),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관리소 방문, 제스퍼(Jasper) 지역의 속도 저감시설
- (도시농업공원 사례조사) 밴쿠버 도시농업공원 답사
- (문화적 도시재생 및 복원 사례조사)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켈거리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답사

다. 출장 일정

일 자	방문지역	주 요 내 용
8월23일 (목)	인천, 캘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18:50) → 밴쿠버 국제공항(12:50) → 캘거리 국제공항(18:25) (14시간 35분 소요)
8월24일 (금)	캘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스타키스 연구소(Miistakis Institute) 공식방문 ▪ Road Watch BC의 파트너 면담 ▪ 캘거리 조류친화형 업무단지 답사
8월25일 (토)	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gary → Banff 이동 ▪ Banff National park UNESCO World Heritage Site
8월26일 (일)	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국립공원관리국(Park Canada)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줄기 단절지 연결 생태회랑 관리
8월27일 (월)	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관리소 공식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킬 DB 및 안내시스템 견학
8월28일 (화)	재스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ff → Jasper 이동 ▪ 재스퍼 국립공원 로드킬 저감시설 답사
8월29일 (수)	재스퍼, 에드먼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sper → Edmonton 이동 ▪ 엘크 아일랜드 국립공원(Elk Island National Park) 답사
8월30일 (목)	에드먼튼, 캘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monton → Calgary 이동 ▪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답사
8월31일 (금)	캘거리, 밴쿠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 국제공항 → 밴쿠버 국제공항(1시간 30분 소요) ▪ 밴쿠버 도시농업공원 답사
9월1일 (토)	밴쿠버,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 답사 ▪ 밴쿠버 국제공항(14:30) → 인천국제공항(11시간20분 소요) ▪ 인천 국제공항 도착(9월 2일 17:50 도착)

1. 로드킬 DB 관리기관 및 저감시설의 공식방문 및 사례조사

1) MIIATAKIS 연구소

○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 켈거리 내 Mount Royal 대학교 내 소재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 자연자원의 보전 등에 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하고 있음
- 로드킬 사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프로젝트 매니저인 'Tracy Lee'와 연구소 현황과 로드킬 저감을 위한 노력, 자료의 활용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음
- 로드킬 관련해서는 'RoadWhatchBC'라는 사이트를 운영관리 중이며, 로드킬 관련한 홍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 함
- 'RoadWhatchBC'는 야생동물로드킬 사고 정보를 접수하는 일종의 파트너쉽으로 여러 기관과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음
- 밴프 국립공원 지역은 멸종위기에 처한 특정한 사슴의 월동지로 이동(migration)을 위한 경로로, 고속도로에 의한 로드킬 위험이 높아 이들 사슴의 보전을 위해 로드킬 연구가 시발되었다고 함

[그림 1] MIIATAKIS 연구소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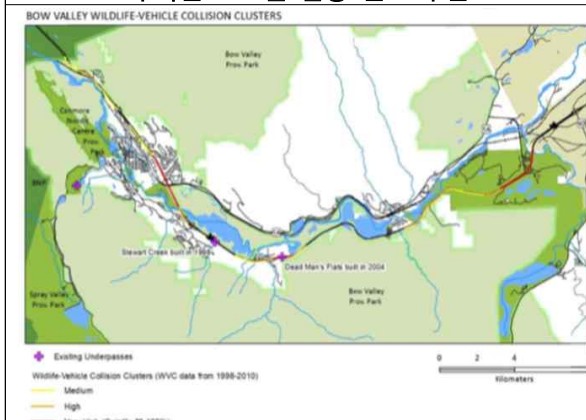
○ 로드킬 연구

- 지속적인 로드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수집을 자료를 토대로 국립공원측에 저감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 정밀조사 구간은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이며 약 39km에 해당되며 기존의 시설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도 연간 80여건에 달하는 로드킬이 발생한다고 함
- 특히 로드킬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무스(Moose)의 경우 건당 3만불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며 그 외 엘크와 사슴도 각각 1.7만불, 6천불 등의 피해를 주므로 연간 로드킬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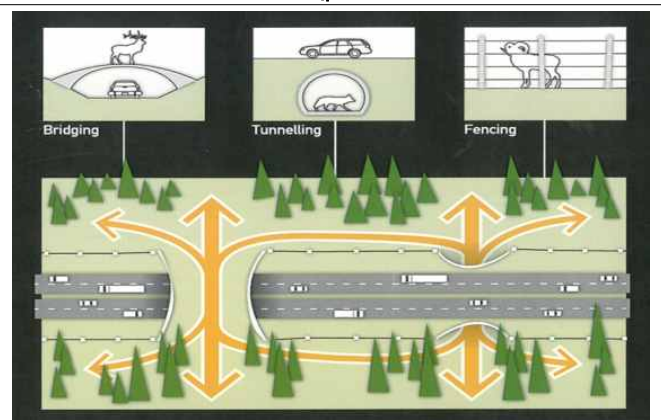
○ 로드킬 자료의 활용

- 최근 들어 앱을 통한 운전자를 통한 자료 제공 및 추적 시스템을 개설했음
- 추적된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미 있는 곳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을 국립공원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함
- 국립공원측은 로드킬 관련 저감 사업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본 연구소의 지속적인 요구는 수용한다고 함
- 국립공원에서 주로 설치하는 저감 시설은 펜스와 교각형통로 그리고 터널형통로 등이라고 함

[그림2] MISTAKIS 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내 수록된 로드킬 발생 빈도 구간



[그림 3] 국립공원 주변 고속도로의 로드킬 저감 시설 개요



2) 밴프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 로드킬 관련 주요 업무

- 국립공원 내 자원관리 특히, 야생동물과 관련한 로드킬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중임
- 회색곰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중임
- 특정 개체의 경우 고속도로 주변만 배회하는 개체가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충돌 사고로 폐사하거나 다친 동물이 종종 발생함
- 회색곰의 경우 배리가 열리는 계절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저지대에서 생활을 함
- 최근 들어 로드킬 사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음

[그림 4] 밴프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브리핑



○ 로드킬 사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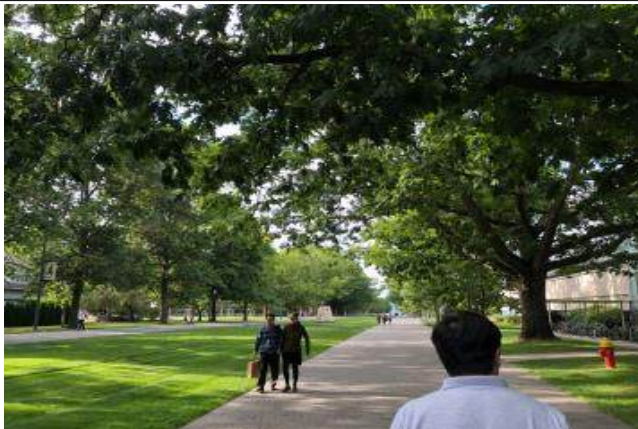
- 밴프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차량충돌에 의한 동물 특히, 사슴류는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하고 있음
- 냉동고에 보관하여 봄철 동면을 마치고 출산과 함께 깨어난 암컷으로 먹이로 활용하고 있음
- 특정 공간에 제공하여 먹이터로 인식 시켜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늑대와 수컷의 행동권은 가급적 배제함
- 늑대 회피 이유는 늑대의 경우 국립공원 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개체 수 증식 억제 를 위함이며 수컷 회색 곰을 피하는 이유는 어린 새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함
- 멸종위기종, 희귀종을 제외하고 충돌 사고를 당한 사슴류는 구조하지 않아 대부분 사살 하여 보관한다고 함

3) UBC(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조류 친화 건물

○ UBC의 조류 친화적 캠퍼스 만들기

- 현재 UBC에서는 밴쿠버의 조류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중이며 캠퍼스 내 일부 건물에 적용 시험중이라 함
- 가이드라인의 경우 아직은 초기 구상단계이며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함
- 신축 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아직 준비단계이며 캠퍼스 내 기존 건물 중 조류 충돌이 많은 곳에 대한 조치 현장을 둘러보았음
- UBC 캠퍼스는 내부에 녹지 면적이 넓고 해안가에 위치하여 다양한 조류가 관찰되며 충돌 또한 자주 일어나기에 조류 충돌에 대한 학생과 직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함
- 기존 건물에 대한 조류충돌 방지 조치로는 우선적으로 외부에 BIRD SAVER를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하거나 건물 상층의 충돌 가능성 있는 구조물의 제거 작업 등이 있었다 함
-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직접 디자인하고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이 유리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형식의 SAVER가 인상적이었음

[그림 5] UBC의 전경



[그림 6] 유리창 외부의 BIRD SAVER 부착 모습



[그림 7] 유리창 외부의 스티커 부착 모습



4) 로드킬 저감 시설 현장

○ 육교형과 터널형 구조물

-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구조물이지만 야생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특징임
- 우선적으로 동물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았으며 무조건적인 단절지점을 잇는 것 또한 아니었음

[그림 8] 국립공원 내 저감시설(육교형 통로와 팬스)



○ 디어게이트(Deer Gate)

-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음
- 무스와 엘크와 같이 몸집이 큰 동물의 발굽을 고려하여 간격이 넓었으며 내구성을 위해 강도와 두께가 있는 파이프를 사용하였음

[그림 9] 고속도로 진입부에 설치된 디어 게이트



○ 도로 주변 관리

- 도로 주변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오픈된 형태였으며 산림 외곽부의 생태적 천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
- 또한 이처럼 수목을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짧게 자르는 것은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초본류를 먹기 위해 도로 주변으로 초식 동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10] 시야가 확보된 도로 전경 및 도리 관리 모습



[그림 11] 로드킬 위험을 알리는 시설



[그림 12] 도로주변서 먹이활동중인 엘크



[그림 13] 로드킬 사고로 폐사한 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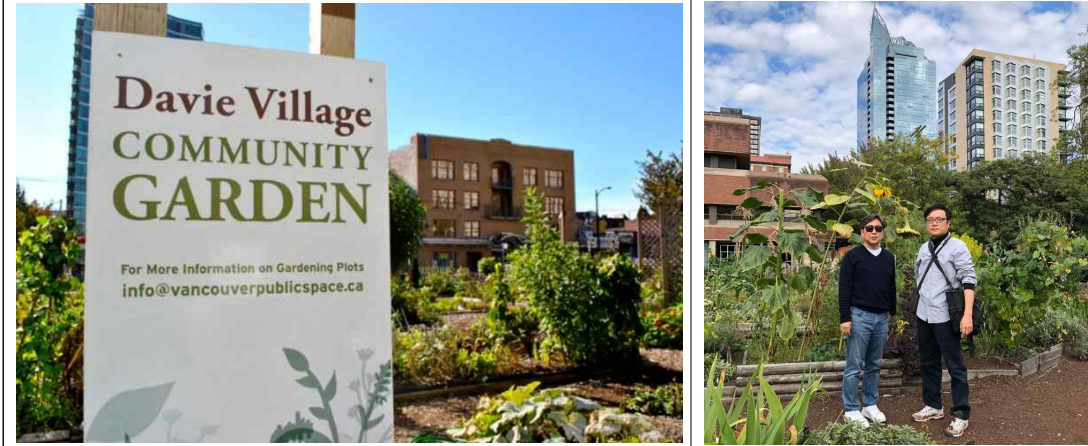


[2] 도시농업공원 사례조사

1) Davie Village Community Garden

- 캐나다 밴쿠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농업공원을 2010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유명해진 공동체정원 도시라 할 수 있음
 - 2010 도시농업공원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2010개의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소비하는 식량에 대해 가급적 스스로 생산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특히, 일부 도시농업공원은 시민들이 도시의 휴유토지에서 텃밭을 일구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며 조성되고 있음
- 연구자가 방문한 데이브 빌리지 커뮤니티 가든은 밴쿠버 도심 한복판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한 도시텃밭으로 도시공동체 증진과 도시민의 힐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된 도시농업공원임
 - 이 커뮤니티 가든은 밴쿠버시가 도심 유휴공간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락한 공간으로 1년에 10달러로 분양받을 수 있음
 - 밴쿠버 시는 개발예정지인 유휴공간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할 경우 토지세의 2/3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밴쿠버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녹색 먹거리라는 생산적 공간 뿐 아니라 꽃을 함께 재배하여 도시정원 경관을 창출하는 공간이기도 함
 - 화훼와 나무, 밭작물을 혼합하는 방식은 농작물에 이로운 토양환경을 만들어 주고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14] 데이브 빌리지 커뮤니티 가든 전경



[3] 문화적 도시재생 및 복원 사례조사

1)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

- 우리가 방문한 밴쿠버 중심에서 버스로 약 20여분 이동해야 하는 섬인 그랜빌 아일랜드는 그랜빌 스트리트 다리(Granville Street Bridge) 남쪽 섬에 위치해 있음
- 1915년 밴쿠버 항구가 발달하면서 팔스 크릭(False Creek) 지역을 매립해 공업단지로 발달했으나, 대공황 시기 제재소가 문을 닫으며 쇠퇴의 길을 걸음
 - 공장과 창고만 남아있던 낡고 오래된 공장지대가 1970년 개조를 통해 다양한 숍과 레스토랑이 들어서면서 관광지로 탈바꿈함
 - 섬을 살리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쇠락한 공장지대가 복합문화의 상업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됨

[그림 15] 그랜빌 아일랜드 전경



출처 : <https://granvilleisland.com/public-market>

- 캐나다 주택금융사의 계획 아래 연방정부, 밴쿠버 시가 그랜빌 아일랜드의 공간을 마켓과 갤러리, 공방, 아트클럽, 디자인 학교, 공원 등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운영 수입으로 재건축 비용을 조달함
 - 개발 과정에서 공장을 모두 이전시킨 것이 아니라, 일부 공업단지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연구자가 방문한 공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오스게메오스(OSGEMEOS)¹⁾의 글로벌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이언츠(Giants)로, 약 21m에 달하는 공장 벽을 3D로 그린 벽화이며, 현재 그랜빌 아일랜드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음
- 현재 밴쿠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그랜빌 아일랜드에는 예술인 공예품 상점, 뮤지컬과 콘서트를 상영하는 아트 클럽 극장, 퍼블릭 마켓(Public Market) 등이 모여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물품 구입이 가능함

1) 쌍둥이 형제로 구성된 브라질 듀오 아티스트

[그림 16] 그랜빌 아일랜드의 자이언츠(Giats) 작품 및 퍼블릭 마켓



- 특히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재즈 페스티벌, 포크 뮤직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축제가 펼쳐지고 있음
-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실험정신의 장으로 펼쳐지는 대표적 축제인 프린지 페스티벌이, 밴쿠버의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개최되어, 매년 9월 약 11일간, 90개 이상의 극단들이 참여함

[그림 17] 밴쿠버 프린지 페스티벌(Vancouver Fringe Festival)



출처 : <https://granvilleisland.com/directory/vancouver-international-fringe-festival>

2) 캘거리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

- 우리가 방문한 캐나다의 캘거리 다운타운 외곽에 위치한 헤리티지 파크는 1900년대 초 서부 개척 시대를 재현해놓은 테마파크임
 - 총 면적이 약 20만 평으로, 내부에 위치한 약 150여 채의 마을과 공원 내 교통수단은 실제 과거 이용된 마차와 증기기관차로 되어 있음
- 헤리티지 파크는 캐나다 각지에서 복원한 1900년 대 초 서부 개척 시대의 레스토랑, 호텔, 우체국, 이발소 등의 건물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방문한 공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골동품 자동차들이 모여 있는 가솔린 엘리 구역을 꼽을 수 있음

[그림 18] 캘거리 헤리티지 파크의 전경



출처 :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things-to-do/exp/heritage-park-historical-village-calgary/#/?galleryItemid=200009396>

- 켈거리 헤리티지 파크는 우리나라 민속촌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각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안내문 중 한국어로 작성된 안내문도 있었음
 - 헤리티지 파크의 내부에는, 바닥에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으며, 파크 안쪽으로 갈수록 점점 과거로 변하는 콘셉트를 가짐
 - 가솔린 앨런 구역을 나오면,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시대의 콘셉트를 가진 마을과 역이 펼쳐지며, 특히 동네의 곳곳에 실제 생활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전통 복잡을 입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헤리티지 파크에서는 여름 주말마다 원주민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 빵이나 비즈 수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차, 크루즈 여행, 대관람차 놀이기구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족단위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었음

[그림 19] 켈거리 헤리티지 파크의 프로그램



출처 : <http://kr-keepexploring.canada.travel/things-to-do/exp/heritage-park-historical-village-calgary/#/?galleryItemId=200009396>

〔1〕 로드킬 DB 관리기관 및 저감시설의 공식방문 및 사례조사

- 로드킬 저감 시설과 관련한 이번 사례 조사에서 크게 배울 점은 2가지임
- 우선은 로드킬 저감 시설이 단순히 단절된 지점을 잇는 다는 개념보다 야생동물이 이용하는 자원을 분석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을 잇는다는 것 그리고 이미 저감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지금도 모니터링을 통해 빈도가 높은 구간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었음
- 따라서 현재 수행중인 충남 로드킬 저감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의미있는 구간을 찾은 후 야생동물의 이용자원 즉, 서식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설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시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임
- Deer Gate 적용 사례의 이해를 토대로 향후 국내 도입 시 특히, 농촌 지역의 지방도로에 적용시 효율성과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충남 지방도 설치 후 모니터링 시행과 함께 전국 단위의 확산도 기대됨
- 국립공원 사무소 방문 시 브리핑 받은 로드킬 사체 활용의 경우 국내에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국내 각 지방 정부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경우 예산난을 겪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구조 동물 먹이 비용 부담과 사체 처리를 위한 비용임
- 따라서 캐나다에서처럼 로드킬 사체를 구조동물 먹이로 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더불어 먹이 비용 저감 등 큰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현행 폐기물법을 일부 수정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도시농업공원 사례조사

- 내포신도시의 공원면적은 총 1.1㎢로 전체 도시면적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데, 1년 운영관리비용만 30억 원에 육박함
 - 공원은 신도시민의 건강과 녹색복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데, 최대 걸림돌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라 하겠음
- 내포신도시는 2018년 현재 외지인비율이 51.5%로 높아 도시공동체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도시라 할 수 있음
 -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도시민 상당수가 전원형 도시생활을 꿈꾸고 이주하고 있지만 정작 텃밭을 일굴 공간이 없는 상황임
- 다행히 충청남도, 홍성군 등은 그동안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농업공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일부 추진한 바 있음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 행복농장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단지 내 텃밭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례가 생겨남
 - 아울러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텃밭조성사업으로 육묘를 무상 분양하고 도시민 원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도시텃밭의 형태가 대중화된 캐나다 밴쿠버의 도시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 도시공동체 정원은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도시텃밭을 통해 활성화한 정책으로써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공원정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앞으로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계획된 공원 일부지역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도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절기 도시농업공원의 미관문제는 텃밭 가장자리에 키작은 사철나무 등을 배치하여 해결하고, 도시농업공원의 유지관리는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내포신도시의 문화도시 육성 전략을 위한 선행사례 시사점

- 캐나다의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와 켈거리 헤리티지 파크(Heritage Park Historical Village)는 문화적 도시재생 및 복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 내포신도시의 문화도시 육성전략 수립 시 접목할 수 있는 각각의 시사점을 가짐
- 캐나다의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는 특히 섬을 살리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재원 조성을 지역의 운영 수입으로 조달하여 재건축 비용을 충당함. 특히 이러한 재원 조성 구조를 갖기 위하여 관광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예술인 공예품 상점이나, 마켓, 투어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었음
 - 초기 단계부터 이를 목적으로 그랜빌 아일랜드의 공간을 마켓과 갤러리, 아트클럽, 디자인 학교, 공원 등을 조성함. 또한 예술가와 방문객이 상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재즈 페스티벌, 포크 뮤직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및 소규모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완성함
 - 향후 내포신도시의 문화도시 육성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재원 조성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갤러리, 예술 거점 공간, 지역특산품이 구입 가능한 시장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과 상시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축제 등이 운영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사료됨
- 캐나다 켈거리 헤리티지 파크는 1990년대 초 서부 개척 시대의 도시를 복원 및 재현함으로써 헤리티지 파크가 도심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음
 -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한 마을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었음
 - 따라서 내포신도시 문화도시를 육성함에 있어, 내포신도시 내에 있는 원주민과 내지인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향후에 이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계획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내포신도시의 역사자원 공간 활용과 더불어 지역의 의미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마을의 복원 및 재현도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의 구축도 필요할 것임